

인도네시아 토라자 현지조사를 다녀와서

최남주
인류학과 석사과정

들어가며

2023년 12월 10일부터 2024년 2월 8일까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현지조사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인도네시아 토라자(Toraja)에 현지조사를 다녀왔다. 본 현지조사는 석사 학위 논문 “복음과 맥락: 인도네시아 토라자 기독교의 이중언어 사용과 지역문화 담론”을 위한 연구의 일환이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중남부 고산지대에 위치한 토라자는 인구 약 50만 명의 소수민족 토라자인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토라자는 특유의 성대한 장례식을 비롯한 의례 문화로 유명하다. 한편 토라자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례적으로 기독교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지역 중 하나인데(인구의 90%가 기독교인이다), 이 점은 학계의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실 지역 고유의 문화를 강조하는 인도네시아 지역연구의 경향을 생각하면 ‘서구’의 종교인 기독교가 주목받지 못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언어인류학의 방법을 빌려 기독교=서구 종교라는 등식에 도전한다. 토라자의 종교적·의례적 언어 사용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분석하면, ‘기독교’와 ‘지역 문화’가 대화적(dialogic) 관계 속에서 서로를 형성하는 관계에 있음이 드러난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편으로는 기독교를 말하자면 ‘지역종교’로서, 다른 한편 토라자 문화를 단순한 지역문화가 아닌 기독교의 “맥락”으로서 구성해가는 토라자인들의 담론행위를 고찰한다.

기독교와 지역성의 관계를 탐구하는 본 연구는 “아시아연구”라는 맥락에서도 의의가 있다. 흔히 기독교는 세계종교라고 불린다. 분명 기독교는 근대 이후 서구 문명이 누려온 ‘보편’의 지위를 등에 업고 교세를 확장해왔으며, 이 점에서 특히나 강력한 “세계종교”이다. 그러나 예컨대 한국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오랜 역사를 통해 한국의 사회문화적 풍경의 일부로 정착했고, 현재는 인구의 30%가 믿는 종교가 된 한국 기독교를 단순히 세계종교라고 할 수 있을까? “지역”의 종교로서 기독교, 나아가 “아시아”의 종교로서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는 없을까? 본 연구는 독특한 지역문화로 유명하면서도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기독교 지역이기도 한 토라자를 연구현장으로 삼아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한다.

[그림-1] 토바라나(To' Barana), 통코난과 알랑



좌측에 늘어선 통코난(tongkonan)은 토라자의 전통가옥이자 토라자 지역문화를 상징하는 건축물이다. 우측에 늘어선 알랑(alang)은 통코난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마루가 있다는 점이 다르다. 통코난과 알랑은 장례식 등의 토라자 전통의례가 거행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참여관찰: 회합과 의례

교구(敎區)에 해당하는 토라자어 “콤봉안 마살로”(kombongan masallo’)는 거룩한 회합을 의미한다. 그러나 토라자인의 “거룩한 회합”은 일요일의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어디든 일정한 사람이 모인다면 그곳은 기도, 찬양, 설교가 울려 퍼지는 거룩한 회합의 자리가 된다. 오랜만에 가족이 다 함께 식사를 할 때, 아이의 생일을 맞아 친척과 이웃을 초대할 때, 집짓기 작업을 위해 품앗이 노동을 소집할 때, 장례식·가옥 축성식 등 전통의례가 거행될 때에도 그렇다. 다중(多衆)이 조성하는 활기(marua’)는 거룩한 의례적 말하기를 동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합에는 이러한 의례적 말하기를 주재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그는 교회 목사와 같은 의례언어 전문가일 수도 있지만, 이들이 없다면 자리에 모인 이들 중 교회 집사, 대학 졸업자, 학교 선생과 같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나서게 된다.

현지조사 기간 동안 연구자는 현지인 가족이 운영하는 민박에 숙박했으며, 집주인 가족은 물론 그들의 친척 및 이웃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덕분에 현지인들의 초대와 권유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거룩한 회합”들에 참여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매주, 때로는 매일같이 열리는 다양한 회합에 참석하면서, 돼지가 도축되고 식사와 음료, 담배가 운반되는 토라자식 회합 특유의 광경뿐 아니라 “거룩한” 의례언어에도 익숙해졌다.

[그림-2] 레아퉁(Leatung), 장례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와 교직자단



오늘날 대부분의 토라자 장례 의식에는 목사가 주재하는 예배가 동반된다. 일반적으로 예배는 상주 가족이 소속된 교회의 목사와 교직자단(majelis)이 주관하지만, 외부 목사가 초청되기도 한다. 이날 레아퉁에서 거행된 장례 예배는 담당 목사가 고인의 친족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특별했다.

녹음·전사·면담: 언어, 종교, 지역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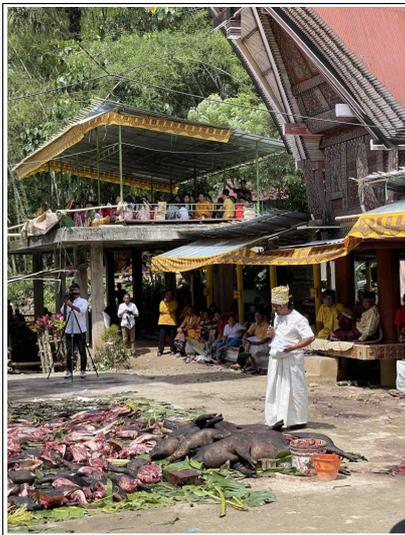
20세기 초 기독교가 전래되기 이전, 즉 “조상의 시대”(tonna to dolo)에도 토라자 사회는 의례언어를 중시했다. 전통사회의 종교지도자인 토미나(to minaa)는 곧 뛰어난 연설가이기도 했다. 오늘날 장례식, 가옥 축성식과 같은 대규모 의례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전통적인 토라자 의례언어는 여전히 “토미나의 말”(kada-kada to minaa)이라고 불린다. 이제는 이 의례언어를 전문적으로 연행(perform)하는 연설가의 절대다수가 종교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음에도, 그 역할은 교회 목사에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토미나의 말”은 목사가 주재하는 기독교식 의례언어, 즉 예배언어와 함께 토라자의 회합을 이끄는 의례언어의 두 축이다. 그러나 두 의례언어는 서로와의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어 왔다. 목사는 의례연설가의 말하기를 보조하거나 때로는 대체하기 위해 “토미나의 말”을 학습하고 이를 예배언어에 결합할 것이 기대된다. 의례연설가는 참석자 대부분이 기독교인인

의례 현장에서 연행을 위해 그들의 연설을 ‘기독교화’한다. 전통적인 의례연설의 소위 “애니미즘적” 요소는 배제·축소되거나 하나님과 교회, 성경을 찬미하는 구절로 변형된다.

현지조사에서 참여관찰과 함께 가장 중요했던 작업은 현장에서 녹음한 의례언어를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 전사(transcribe)하는 일이었다. 언어인류학 연구는 일반적인 인류학 연구방법인 참여관찰과 면담뿐 아니라 언어자료를 녹음·전사하는 고된 작업을 요구한다. 기독교적 요소와 전통 구비문학의 요소가 혼재하는 복잡한 의례언어를 전사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연구자는 주변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는 한편 해당 의례언어를 연행한 목사와 의례연설가를 직접 방문하여 협조를 구했다. 이러한 방문은 자연스럽게 인류학적 심층면담으로 연결되었다. 목사 및 의례연설가와 면담은 언어, 종교, 지역문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을 넓혀주었으며, 추후의 본격적인 언어자료 분석을 위한 배경지식을 제공했다.

[그림-3] 만데텍(Mandetek), 가옥 축성식에서 의례언어를 연행하는 의례연설가



전통적인 의례언어를 연행하는 의례연설가는 고라고라 통콘(gora-gora tongkon), 프로토콜(protokol) 등 다양하게 불리지만 가장 대중적인 지칭은 토미나(to minaa)이다. 그러나 토미나는 종교지도자를 의미하므로, 기독교화된 의례에서 연설만을 담당하는 오늘날의 연설가들은 “토미나의 말”을 할 뿐 엄밀히 말해서 “토미나”는 아니다.

나가며

인류학 연구는 현지에서 오랜 기간 머물면서 현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언어와 관습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언어자료의 정교한 분석을 요구하는 언어인류학 연구라면 더욱 그러하다. <아시아연구소의 현지조사 지원 사업> 덕분에 두 달이라는 넉넉한 기간 동안 현지조사를 수행할 수 있었다. 아시아연구소에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